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Palенque de San Basilio) 흑인공동체 문화변동의 주요 요인

차 경 미
(단국대학교)

국문요약

35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마을은 콜롬비아 카리브 해 연안 중심 도시 카르타헤나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70Km로 떨어진 몬테스 데 마리아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는 17세기 식민노예제에 저항하여 자유를 찾아 도주한 흑인 노예인 시마론들이 형성한 공동체이다. 식민시대에 존재했던 흑인 팔렌케들은 식민 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인접지역과의 접촉을 통해 문화적 변용을 경험했다. 그러나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는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보전하며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흑인 시마론 후손들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마을은 사회조직체, 크레올어, 의술과 종교 그리고 음악과 같은 전통문화 속에 아프리카의 생명과 리듬을 유지하며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내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공동체를 이탈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공동체 해체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전통생산양식의 쇠퇴, 내전으로 인한 강제 이주, 인종차별, 및 정보 통신의 발달은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주도하며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를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 본 논문은 문화의 변동을 주도하는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을 통해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공동체가 직면한 전통 가치관의 붕괴와 변화의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고유의 문화, 인구이동, 문화변동

I. 들어가는 말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는 콜롬비아 카리브 해 연안 중심 도시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로부터 약 70Km 떨어진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다. 팔렌케는 식민노예제에 저항하여 자유를 찾아 도주한 흑인 노예인 시마론들이 계곡과 협곡에 만들어 놓은 은신처를 의미한다. 식민시대에 존재했던 흑인 팔렌케들은 식민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인접지역과의 접촉을 통해 문화적 변용을 경험했다. 그러나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는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보전하며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흑인 시마론 후손들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Friedemann, 1998: 81). 라틴아메리카의 시마론 공동체 문화가 거의 소멸 되거나, 원주민 문화와 수입된 문화 그리고 정복자의 위치를 갖춘 백인 문화와 혼합 된 것에 반해,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투쟁한 아프로 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곳으로 남아있다.

194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산업화와 도시화를 계기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공동체는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접촉은 사회와 경제적 변화를 수반했다. 정부에 의해 추진된 토지개혁법을 통해 공유지와 미개간 국유지에 대한 개인소유화는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그 결과 팔렌케의 토지는 지역의 독점세력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빈곤화가 초래되었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 팔렌케 인근도시지역의 산업성장과 공공사업으로 인한 도시노동력 증가는 팔렌케 농민들의 이주를 동반했고, 토지로부터 농민들의 이탈을 가속화 했다(María, 1991:48).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전통적인 사상과 가치관은 사회조직과 문화 속에 내재되어 아직도 그 사회의 근본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지역적 고립으로 인해 인종적 혼혈의 경험이 적었고, 외부와의 접촉으로부터 벗어나 아프리카의 전통이 생명과 리듬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해온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1980년대 이후 국내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공동체를 이탈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공동체 해체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강제 이주, 인종차별, 전통생산양식의 쇠퇴 및 정보 통신의 발달은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주도하며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를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 본 논문은 문화의 변동을 주도하는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을 통해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공동체가 직면한 전통 가치관의 붕괴와 변화의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공동체 형성과 문화적 특징

II.1 형성과정

콜롬비아 카리브 해 연안에 위치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현재 400가구 3천5백 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포르투갈의 식민지 기니비사우(Guinea Bissau)공화국 비오호(Biohó)지방에서 탄생한 벵코스 비오호(Benkos Biohó) 혹은 도밍고 비오호(Domingo Biohó)로 알려져 있는 시마론에 의해 1603년에 형성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흑인 독립지역이다(Antonio, 2001,237-240).

1589-1631년 사이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토지를 점령하였고 흑인 노예 노동력을 바탕으로 토지개발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지의 집중현상은 가속화되었고 대농장 아시엔다(Hacienda)가 형성되었다. 중세 봉건 영지와 유사한 하나의 폐쇄적인 단위였던 아시엔다의 발전은 자유를 찾아 도주한 흑인노예인 시마론의 증가와 그들의 은신처인 팔렌케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17세기 당시 콜롬비아에는 35개 이상의 팔렌케가 존재했다. 팔렌케 시마론들의 활동은 아메리카 여러 지역에서 식민노예제 폐지 및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조직화된

팔렌케 형성의 동기가 되었다.

비오호 지휘아래 시마론의 조직적인 저항은 1612년 디에고 웨르난데스(Diego Fernández)의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 주정부가 시마론과 상호공존협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1619년 비무장 상태였던 비오호가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 거리에서 체포당하고, 1621년 3월 16일 처형당하자 그 효력을 상실했다. 비오호 사후 시마론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시마론과의 지속되는 전쟁에 지친 식민정부는 1713년 마리아 데 가시아니(María de Casiani) 주교의 중재로 새롭게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스 스페인 식민정부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아메리카 최초의 흑인 독립 지역이었다.

식민정부와의 평화 협상체결에도 불구하고 팔렌케의 성장과 활동은 쇠퇴하지 않았다. 17세기 말 그 수는 2배로 증가했고, 18세기 전 기간 동안 흑인 노예에 의한 폭동과 도주는 확대 되었다. 18세기 시마론들의 거센 저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자 쿠바,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자메이카와 수리남 식민정부는 협상을 통해 시마론 공동체의 영토와 자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Arrázola, 1970:15).

18세기 중반 이후 아시엔다는 흑인 노예 노동력과 함께 메스티소 소작농이 제공하는 노동력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노예 노동력은 더 저렴한 메스티소 노동력으로 대체되었다. 19세기 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부분적으로 노예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노예제 폐지는 풍부한 메스티소 노동력 확보로 인해 가능했다(Meisel, 1983:260).

1847년 1월 노예제 전면폐지법이 공포되었고, 1852년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노예제 폐지이후 자유인으로 돌아온 흑인 노예들은 기억의 땅 아프리카로 돌아가거나 아시엔다에서 값싼 노동을 제공하는 일용직 노동군단을 형성했다. 노예제 폐지와 함께 시마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식민체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던 팔렌케도 그 의미를 상실했다. 팔렌케는 시마론 후손들의 도시이주를 통해 해체되거나 도시화 되었다. 그러나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시마론 공동체는 대서양에서 유일하게 생존했고,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공동체의 연속과 혁신이 혼합된 끝없는 활력은 이들 집단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토

착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

II.2 문화적 특징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방식의 경제체제를 기초로 콜롬비아 아프로 아메리카 디아스포라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연령체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조직체인 마-구아그로(Ma-Kuagro)에 기초한 독창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마-구아그로는 팔렌케 주민의 집단적 경험을 통해 정체성과 소속감을 향상시켜왔으며 혈연관계가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기능해 나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마-구아그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령체계로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마-구아그로의 기능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위계질서 그리고 연령에 따른 권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마-구아그로는 호혜적 맥락의 제도로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부조 문화를 대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사회는 마-구아그로를 통해 연장자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공동체의 도덕과 가치를 전승해 오고 있다 (Gutiérrez,1976:315).

인간의 문화는 상징에 기초하고 있고 문화를 영속시킨 것도 또한 상징의 사용이었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언어로서(최협, 2008:68-69) 언어 안에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 문화는 시작되었고, 언어를 통해 그들의 문화전승은 이루어 졌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아프리카어와 엔틸레스 제도에서 사용하던 어휘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문법 체계를 통해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Singh et al,1988:13). 팔렌케어는 어휘뿐만 아니라 문장 구성 면에서도 독자적인 체제를 갖춘 특수한 언어다. 팔렌케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아프리카어에서 파생된 반투(Bantú)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투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유사한 400개 언어의 집합체로서 팔렌케어는 아프리카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장의 특징과 매우 다른 새로운 체계를 갖추고 있다(Dieck,2000:75).

한편, 전통종교는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주민들의 사유방식 또는 생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전통종교가 아무런 손상도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

되고 유지될 수는 없었지만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의 종교는 가톨릭이지만 의식은 전통적이다. 전통종교는 문서로 기록되어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성 그리고 구전되는 역사와 의례 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전통적인 문화배경을 지닌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룬발루(Lumbalú)는 시적인 노래 형태의 장례음악으로서 전통을 미학적으로 표현하여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의식적 행위의 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Edwin et al, 2006: 41). 전통음악은 아프리카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의 결과들을 만들어왔다. 전통은 그들이 자기표현을 위해 새로 만든 장르에 살아있다. 또한 전통의학은 주술을 통해 영혼과 살아있는 사자의 본성을 파악하여 질병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종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Maya Restrepo et al, 2000). 전통의학과 주술의식은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공동체가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프리카적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의사는 의료인이자 주술과 점술을 행하는 종교적인 중개자 및 종교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문화는 아프리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유지하면서 풍부한 기억력과 상상력을 기초로 입을 통해 사실을 전승하는 구전형식으로 보존 발전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은 주로 연장자나 주술사 등 사회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전승되었다. 연령대 사회조직체인 마-구아그로, 독창적인 크레올어, 그리고 음악과 의술 같은 전통문화는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존재를 긍정적이면서 자생적으로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II. 문화변동의 주요 요인

산업화와 도시화를 계기로 시작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공동체의 외부와의 접촉은 사회와 경제적 변화를 수반했고, 이후 전통적인 이념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파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전통적인 것이 완전히 바뀌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변화는 지극히 피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삶의 측면일 뿐 사유방식과 정서 혹은 신앙과 같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전통적인 사상은 아직도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사회의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 형식적인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1980년대 들어 더욱 악화된 국내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급격한 주민의 공동체 이탈을 경험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전통적 질서와 가치관은 붕괴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인종차별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동일문화의 소비침투 그리고 화폐경제로의 변화는 주민의 공동체 이탈을 주도하고 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 문화변동을 주도하는 요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III.1. 내전으로 인한 강제이주

콜롬비아는 40년째 내전 상태에 놓여있다. 1960년대 중반이후 정부군과 좌익 게릴라 그리고 지방에서 주민들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구성한 민병대(Paramilitares) 및 좌익반군에 대하여 결성된 우익 무장단체 AUC(Autodefensas Unidas de Colombia: 콜롬비아 연합자위단)의 상호대립관계 구도 속에 지속돼온 내전으로 사회와 경제적 불안은 날로 가중되었다. 이와 더불어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약조직 등이 좌우익 무장단체와 서로 얽혀 소모적인 투쟁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콜롬비아정부는 90년대 말부터 양대 게릴라인 FRA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와 ELN(Ejército Liberación Nacional: 민족해방군)와의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화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좌익반군단체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다. 정부와의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대 게릴라는 지속적으로 테러를 감행했다.

9.11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 게릴라 지원에 힘입어 콜롬비아 정부는 과거 무장단체와의 대화를 중지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과 게릴라문제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 하에 종합적인 국가 재건정책인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미국 원조 13억 달러를 포함한 총 75억 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마약 조직과 반군을 소탕, 정치, 사회, 군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릴라와 마약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실시했다. 취임 이후 우리베 대통령(Alvaro Uribe:2002-2010)은 게릴라 및 마약조직에 대한 양보 불허를 선언하면서 힘에 의한 대 게릴라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경찰 1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3000여명 규모의 2개 군 여단 병력을 증원하는 한편 100만 규모의 민간인들을 민병대로 동원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대규모 농장 경영주와 개인 기업가들의 자경단 성격으로 1980년대 결성되었던 민병대와 1990년대 말 정부군의 능력저하로 조직된 우익무장단체 AUC 조직이 활성화 되었다(Gustavo, 2006:15).

우리베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에 힘입어 활성화된 민병대와 우익무장단체 AUC는 정부군과 연계하여 게릴라 소탕작전을 수행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민병대와 AUC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게릴라 거점지역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살해와 약탈을 자행했다. 점령지 확장을 위한 군 공격 과정에서 AUC는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의 양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 팔렌케 데 산비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콜롬비아의 주요 게릴라 FARC와 ELN 그리고 ERP (Ejército Revolucionario de Popular: 인민혁명군)의 활동 거점지역인 로스몬테스 데 마리아(Los Montes de María)산악 끝자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정부군과 AUC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다. 로스몬테스 데 마리아 지역은 콜롬비아의 남쪽 볼리바르(Bolívar)와 수크레(Sucre)주 중앙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악지역이다. 볼리바르 주의 57.63% 그리고 수크레 주의 42.37%를 차지하는 이 지역의 지리적 조건은 게릴라 활동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들어 로스몬테스 데 마리아 지역에 대한 AUC의 만행은 급격한 증가했으며, 이것은 마을 해체 및 급격히 인구가동을 초래했다. 2000년 2월 50명의 우익 무장단체 AUC 요원들이 천여 명 정도가 거주하는 쉥게(Chengue)의 오베하스(Ovejas)마을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했다. 마을 중앙 광장에 주민을 모아 성, 연령별로 분류한 후 게릴라를 지원했다고 의심되는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시도했다. 3시간동안 지속된 그들의 만행으로 24명이 사망

하고 35채의 집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8백 명의 주민들은 오베하스의 중심지 찰란(Chalán)과 신세레호(Sincelejo)로 이주했다. 이후 주변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계에 인접한 도시 돈가브리엘(Don Gabriel), 살리트랄(Salitrал), 오레헤로(Orejero)와 엘테소로(El Tesoro)로 이주했다. 우익 무장단체 AUC의 추가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로스몬테스 데 마리아의 중심지 체계의 인구이동을 가속화했고, 주변도시 신세레호(Sincelejo), 엘콜로소(El Coloso) 그리고 찰란으로의 이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0년 들어 민병대와 우익무장단체 AUC가 게릴라 준동지역에 대한 습격과 무차별적인 학살 그리고 납치를 자행함으로써 볼리바르 주 남쪽지역 흑인공동체 플라온(Playon), 맘푸한(Mampujan), 아레날(Arenal), 카티발(Catival),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와, 라봉가(la Bonga) 그리고 시파코아(Zipacoa) 주민의 강제 이주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역은 최근 AUC가 자행한 만행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과 접경에 위치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시마론 공동체 역시 급격한 인구의 이동을 경험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시마론 공동체의 주민이탈은 2001년 이후 더욱 가속화 되었다. 좌익 게릴라의 주요 거점지역인 로스몬테스 데 마리아 산악지역에 위치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는 라봉가와 가티발 그리고 토로 손리사(Toro Sonrisa) 3개의 마을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최근 AUC의 공격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라봉가와 가티발로 인해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주민의 이주는 가속화 되었다. 게릴라와 우익 무장단체 AUC사이의 무력분쟁의 주 무대였던 로스몬테스 데 마리아에 위치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의 지리적 조건은 팔렌케 공동체가 지속적인 무장 세력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에 대한 AUC의 만행은 1998년 3월을 시작으로 지속되었다. AUC는 마을을 습격하여 게릴라 FARC에게 음식과 정보를 제공했다고 의심되는 주민 두 명을 마을 광장 한 복판에서 머리를 잘라 살해했다(El Espectador, 1998, 3월4일).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2000년 이후에도 AUC에 의한 주민의 암살과 위협은 끊이지 않았다. 2001년 당구장에서 여가를 즐기던 학생들과 마을 청년들이 AUC가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캐빈 소총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결과 훌리안 에레라(Julian Herrera), 딜손 미란다(Dilson

Miranda), 세넨 미란다(Senen Miranda), 미겔 발데스(Manuel Valdez)등 4명의 청년들이 사망했고, 루이스 펠리페(Luis Felipe) 1명이 중상을 입었다(El Tiempo, 2001, 2월 3일). 인근 마을 라봉가와 가티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공동체의 주민들은 인근도시 산파블로(San Pablo)와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 외곽 넬슨 만델라(Nelson Mándela) 지역으로 이주했다. 반복되는 우익 무장그룹의 이러한 만행으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주민의 이주는 확산되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는 시마론 후손 공동체로서 식민시대 부터 독자적인 사회와 고유문화를 형성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유일한 공동체다. 콜롬비아속의 작은 아프리카 ("Rinconcito de Africa en Colombia")로 알려진 이 공동체는 노예제 폐지를 위해 투쟁한 아프로 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저항으로서의 역사와 아프리카에 대한 집단적 기억으로서의 문화를 이어가는 라틴아메리카 유일의 흑인 팔렌케로서 그 보존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더욱 악화된 내전은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급속한 인구 이동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공동체는 해체 위협에 놓여있다.

내전으로 인한 강제 이주는 1980년대부터 콜롬비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내전으로 인한 강제 이주자는 약 1백만 명 이상에 이른다. 인권과 이주를 위한 상담소 CODHES(la Consultoría para los Derechos Humanos y el Desplazamiento)에 의하면 내전으로 인한 연간 강제 이주율은 199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 3배로 급격히 증가했다(CODHES, 1998). 강제이주로 고통 받는 흑인은 전체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난민위원회는 콜롬비아가 수단(Sudán), 아프카니스탄(Afganistán), 앙골라(Angola)와 보지니아(Bosnia)의 뒤를 이리 세계에서 9위의 난민을 배출하는 국가로 보고하고 있다(Ibáñez, Documento CEDE 2005-35). 민병대와 우익무장단체 AUC가 민간인들에게 자행한 무차별적인 학살에 대한 공포가 콜롬비아 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이주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이러한 이주는 안티오키아(Antioquia), 볼리바르(Bolívar), 세사르(Cesar)와 노르테 데 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주 막달레나 메디오(Magdalena Medio)지역과 우라바(Urabá) 그리고 초코(Chocó)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제이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볼리바르주와 세사르주에 걸쳐 위치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공동체에는 현재 400가구의 약 3,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구의 이동은 지속되고 있다. 공동체를 이탈한 팔렌케 주민들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주로 볼리바르주의 중심도시 바라키야(Barranquilla)와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에 거주하고, 일부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http://www.renacimiento.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0).

III.2. 인종차별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콜롬비아로 끌려왔으며, 1886년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소수의 백인에 의해 지배되는 인종이 계급인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는 흑인들은 낮은 수준의 교육과 그에 따른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흑인들에겐 상대적으로 교육과 경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Sánchez & García, 2006: 21).

농촌을 떠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흑인들은 빈민가에 정착하여 도시 최하층을 형성했다. 교육과 경제적 이유로 혹은 내전으로 이주해온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이주자들은 카리브 해 연안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흑인들과 함께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시의 변두리 넬슨 만델라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정착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흑인들은 전체 인구의 82%가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도의 빈곤상태에 놓여있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백인과의 임금 격차도 매우 크고, 흑인 노동자 중 74%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 사회는 채용에서나 주요 직책에서 흑인을 배제시키는 인종적 차별이 일상화 되어 있다(Perry, 2004).

흑인들은 주로 산안드레스(San Andrés),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 산타 카탈리나(Santa Catalina)와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지역에 거주하며, 전체 콜롬비아인의 26%를 차지한다. 2005년 실시된 인구조사에 의하면 흑인 인구는 총4

백4십만에 이르고 있다. 흑인 거주 지역에서도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주거, 교육, 보건 환경 및 경제상황에 처해있다 (CONPES , 20004:6).

인종차별은 볼리바르 주정부가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에 거주하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강제이주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볼리바르주 정부는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의 흑인거주 지역에 대한 초대형 도시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식민 시대부터 형성되었던 흑인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거주민은 강제이주 되었다. 현대화는 도시로부터 흑인들을 분리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파괴된 흑인 공동체는 현대식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백인 거주 지역 보카그란데(Boca grande)와 라기토(Laguito)로 대체 되었다. 강제 이주한 흑인들은 도시 외곽의 또 다른 빈민가를 형성하며 티에라 봄바(Tierra Bomba)에 정착했다. 또한 70년대 초 참바쿠(Chambacú)에 거주하던 흑인들은 더럽고 게으르며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는 이들 주거지에 대한 강제 철거를 추진했다. 현재 이 지역 역시 백인들이 거주하는 고급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이주자들은 볼리바르 주 수도인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시 관할지역-로차(Rocha), 푸에르토 바델(Puerto Badel), 감보테(Gambote), 신세린(Sincerín), 마아테스(Mahates), 바이운카(Bayunca), 산타 카탈리나(Santa Catalina), 마이라 라 바하(María la Baja), 산 환(San Juan), 카라마르(Calamar), 아로요 온도(Arrollo Hondo), 아토 비에호(Hato Viejo), 마강게(Magangue), 산 마르틴 데 로바(San Martín de Loba), 아치(Achí), 시미티(Simití)-에 주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 인구는 대략 1백2십만8천1백8십1명에 이른다.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의 흑인 인권운동가 라파엘 가스티오(Rafael Castillo)신부에 의하면 민병대에 의한 강제이주가 확산되던 2000년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로 이주해온 이주자는 총 41,360명이다. 그 중 8,937명이 흑인으로서 흑인 이주자의 증가로 인해 볼리바르 주 전체 이주민의 50% 이상은 흑인으로 구성되었다(Ibáñez, Documento CEDE 2003-37).

교육과 경제적 목적으로 도시에 정착하여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시도했던 팔렌

케 데 산바실리오 이주자들은 팔렌케 언어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팔렌케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 전체에 대한 편견을 동반했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의 흑인 공동체 내에서도 팔렌케 언어는 “스페인어의 사투리(español mal hablado)”로 폄하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 팔렌케 이주자들은 팔렌케 언어 사용에 대한 수치심과 함께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팔렌케 언어사용을 금지했다.

1972년 "키드 팜벨레"(Antonio Cervantes "Kid Pamele")로 불리던 팔렌케 출신 권투선수가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로 세계 권투 챔피언(WBA 주니어웰터급)으로 등극하자 콜롬비아 사회에는 팔렌케 흑인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함께 그들의 독창적인 문화를 매스컴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팔렌케 주민들도 자신들의 언어가 스페인어의 사투리가 아닌 그들만의 독창적인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 지역에 정착한 팔렌케 이주자들은 언어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인종적 차별의 중심 대상이 되었다. 시마론 후손으로서 팔렌케 이주민들은 식민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었고, 열등인종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욱이 같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팔렌케 흑인들에게는 다른 흑인과는 차별적인 고용의 기회가 주어졌다. 팔렌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성적희롱은 일상화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볼리바르 주 전역에서 일반화 되었다. 팔렌케 이주자 및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종차별은 팔렌케 이주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활용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다. 콜롬비아 사회는 인종적 차별과 함께 팔렌케 언어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통해 팔렌케 이주민은 물론 공동체 거주민에 대한 이중적 차별을 가했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팔렌케 공동체 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 파견교사들은 콜롬비아 사회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차별과 편견의 시각을 바탕으로 공동체 사회와 문화를 평가했으며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공동체 내부에서 배출된 젊은 교사들 역시 공동체가 유지하고 있는 생활방식과 문화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미개한 문화라는 입장을 취했다(Funcionarios del DNP, 2006 - 2010). 이것은

팔렌케 흑인 공동체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공동체 이탈을 초래했다.

III.3. 동일문화 소비의 침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동일한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어느 곳이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해 졌다. 우루과이라운드나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거치며 각국의 국내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상품과 자본의 세계적인 유통이 자유로워졌다. 물자와 정보의 이러한 유통은 상이한 문화들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문화는 사회적으로 전승되어 인간에게 습득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험의 종합체이다(전경수, 1999:57). 그러므로 문화는 지역적, 역사적 특수성을 간직하며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 반면 문화 상품은 단기간의 대중소비를 위해 산업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이다.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문화상품은 수송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을 기반으로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에 의해 지구촌 곳곳에서 소비된다. 문화산업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상품을 판매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 진행 과정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는 항상 서로 접촉과 교환 관계를 맺어왔으며 대량생산을 통해 선진 국가들의 상품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소비되기 시작했다. 특히 문화상품의 세계적인 소비를 통해 세계인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동일한 문화상품을 동시에 소비하는 문화상품시장의 세계화는 선진 산업사회의 문화 상품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각 지역의 특수한 문화들을 파괴하고 있다(장피에르 바르니에/주형일 역, 2008).

정보통신의 발달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 주민들은 대량생산된 문화상품들의 급격한 유입을 통해 외부세계의 사람들과 동일한 문화를 소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동일한 가치체계가 공동체 안으로 침투했다. 특히 T.V의 보급은 자기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볼 없게 만들었다. 영상 매체를 통해 소개된 외부세계의 신념과 관습이 자신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주민들은 자신들의 것을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며 경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동체 주민들의 동일 문화 소비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www.imdb.com/title/tt0405232/).

한편, 젊은 세대들은 도시로 이주한 친인척 혹은 친구들을 통해 소개된 새로운 생활방식을 동경하며 수용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증가한 관광객들의 소비문화는 팔렌케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모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몇 천 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서구의 근대화와 산업화로 형성된 가치체계를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주민들의 경제적 열등감을 증가시켰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발했다.

III.4. 생산모델의 점진적 쇠퇴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외부와의 단절을 통한 그들만의 고유 생산양식을 발전시켜왔다. 노예제 폐지이후 팔렌케 토지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가 인정되었다. 또한 1940년대 중반 정부가 추진한 현대화 과정 속에 공유지와 미개간 국유지에 대한 개인소유화는 가속화 되었다. 토지개혁법을 통한 공유지의 흡수 합병과 공유지의 불하정책(Fáls Bórda, 1975:61-65)은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광활한 토지가 지역의 독점세력에게 점유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토지 사유화로 인한 경제, 사회 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여전히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개념을 확립되지 않았다.

토지는 집단소유 형태와 공동생산 방식을 통한 집단의 권리가 존재했다. 주민 모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생산품에 대한 소유 권리는 일한 자만이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아프리카 티브(Tiv)와 누에르(Nuer)종족에서 나타났던 형태로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그 모형을 그대로 유지했다(Evans, 1982:89-91).

공동체는 농업과 목축업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통해 생물학적인 성과 연령에 기초한 역할 분담이 주어졌다. 집약적인 농업사회인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공동체에서 농업은 모두 남성의 역할이다. 유카, 옥수수, 땅콩 경작과 가축사육은 남성의 노동으로 생산되었고 그러한 노동은 사회생산 노동으로 간주되었다. 여성은 가사 일을 전담하며 추수에 농산품 사후 관리를 담당했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내부 소비를 위한 것이었고, 공동체 사회 재생산을 위한 것이었다.

1980대 흑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정부의 개발정책은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의 자연과 문화와는 동떨어진 서구식 보편적 교육을 보급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이 공동체로 급격히 편입 되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공동체에 화폐경제가 도입되면서 자급자족사회는 이윤 추구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팔렌케 공동체의 경제는 자립 자조에서 시장을 중시하는 외부 의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www.fedepalma.org/document/2006/congreso_a_uribe.doc).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와 공동체적 유대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화폐경제는 공동체 주민사이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바꾸고 더 나아가 경제적 계급을 낳았다. 이로써 전통사회에서 상부상조하던 관계는 수동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팔렌케 여성들은 공동체의 주요 생산품인 치즈, 옥수수가루 그리고 육류를 인근 도시 시장에서 판매하며 경제생활을 주도해 나갔다. 공동체 내부소비를 위해 전통의 방식으로 생산되고 판매 되던 농축산물은 여성들을 통해 상품화 되었다. 경제활동을 위해 여성들은 가정을 떠나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일정 기간을 도시에 거주하였고, 남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팔렌케 공동체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로 남성권위 체계는 흔들렸다. 또한 가족과 친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에서의 통제는 약화되고 사회 전반에 가치체계의 혼란을 초래했다(María Pia, 1991:56).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공동체의 전통적인 생산모델의 점차적인 쇠퇴와 토지생산의 감소는 여성의 도시 이주 증가와 함께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와 위계질서 그리고 연령에 따른 권위의 변화를 동반했다.

IV. 맺음말

17세기 시마론에 의해 형성된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는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유일한 흑인 팔렌케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공동체 형성은 아프로 아메리카 디아스포라의 저항의 역사이고 그들의 문화는 아프리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모여져 새롭게 창조된 기억의 문화인 것이다.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독창적인 사회와 문화를 유지해온 공동체는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인구의 이동을 경험하였고, 내전의 격화 및 정보통신의 발달은 급격한 인구이동과 함께 전통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했다.

내전으로 인한 강제이주는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공동체의 인구이동을 주도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지원 하에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게릴라와 마약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실시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무기력한 정부군을 대체할 민병대와 우익무장단체 AUC 조직이 활성화되었다. 정부군과 연계하여 게릴라 소탕작전을 수행하던 AUC는 점령지 확장을 위한 군 공격 과정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의 양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콜롬비아의 주요 게릴라들의 활동 거점지역인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AUC의 학살과 협박에 시달렸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주민의 강제이주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팔렌케 문화변동을 주도하는 인구 이동의 또 다른 요인은 인종차별이다. 콜롬비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교육과 경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흑인들은 사회 전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채용에서나 주요 직책에서 흑인을 배제시키는 인종적 차별은 콜롬비아 사회에서 일상화 되어있다. 팔렌케 공동체를 이탈하여 도시에 정착한 이주자들은 이러한 인종차별과 함께 언어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해야했다. 콜롬비아 사회는 시마론 후손으로서 팔렌케 주민들을 식민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하였고, 그들의 언어에 대한 편견은 이주민은 물론 공동체 거주민들에 대한 이중적 차별을 가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그들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 파견교사들이 젊은 세대에게 공동체가 유지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미개하다는 열등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들의 공동체 이탈을 초래했다.

한편, 정보통신의 발달은 대량으로 생산된 동일한 문화상품을 세계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동일상품의 소비는 팔렌케 공동체 주민의 소비 욕구를 증가시켰고 이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인근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유발했다.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 주민들은 T.V를 통해 소개된 외부세계의 신념과 관습이 자신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것을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며 경멸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공동체 주민의 동일 문화 소비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 진행 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일한 문화상품을 동시에 소비하는 문화상품시장의 세계화도 진행되었다. 외부로부터 소개된 새로운 소비문화는 팔렌케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대화와 산업화로 형성된 가치체계는 팔렌케 공동체 안으로 침투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열등감을 증가시켰고 이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발했다.

또한 전통생산방식의 쇠퇴는 여성 인구의 이동을 수반했고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개발정책은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가 그들의 전통 생산방식과는 동떨어진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으로의 급격한 편입을 동반했다. 화폐경제가 도입되면서 자급자족 사회는 이윤 추구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공동체 내부소비를 위해 생산되고 판매 되던 농축산물은 여성들을 통해 상품화 되어 인근지역에서 소비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의 도시로의 이주는 증가했고, 여성의 강화된 경제적 역할은 팔렌케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사회적 관계와 위계질서의 변화를 동반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이후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는 격화된 내전, 인종차별의 심화, 동일문화의 소비침투 및 전통생산방식의 쇠퇴로 인해 급격한 인구이동의 증가를 경험했다. 인구이동을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요인들은 팔렌케 데 산바실리오 흑인 공동체의 새로운 문화 이식과 문화변용을 주도하면서 전통과 변화의 경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참고 문헌

- 전경수, 『인류학과의 만남』,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최협, 『부시맨과 레비스트로스』, 풀빛, 2008.
- 장피에르 바르니에/주형일역, 『문화의 세계화』, 한울, 2008.
- Antonio, Parada Fortul, Benkos: *Las Alas de Un Cimarrón*, Colombia: Editorial Antillas, 2001.
- _____, Orika: *La Gacela de la Madrugada, Colombia*, Casa Editorial, 2003.
- Arocha, Jaime, "Conferencia", dictada dentro del curso Historiografía Colombiana, Santa Fe de Bogotá: Departamento de Historia, Facultad de Ciencias Sociales, Universidad de los Andes, 2001.
- Arocha, Jaime; S. de Friedemann, Nina, *De sol a sol. Génesis, transformación y presencia de los negros en Colombia*. Bogotá, Planeta Colombiana Editorial, 1986.
- Arrázola, Roberto, Palenque: *Primer pueblo libre de América*. Cartagena de Indias Colombia: Ediciones Hernández, 1970.
- Dieck, Marianne, "La negación en palenquero", *Análisis sincrónico* Madrid: Iberoamerica-Vervuert, 2000.
- Duncan, Gustavo, *Los Señores de la Guerra: de Paramilitares, Mafioso y Autodefensas*, Palneta, 2006.
- Evans, Pritchard, *La Mujer en Sociedad Primitivas, Colombia*, Ediciones Península, 1982
- Fáls Bórda, *La Cuestión Agraria*, Bogotá: Punta de Lanza, 1975.
- Friedemann, Nina, "San Basilio en el universo kilombo-África y Palenque- América" En: Adriana Maya, (ed.), *Los afrocolombianos. Geografía humana de Colombia*, Tomo V. 1998.
- Gutierrez de Pineda, Virginia, *Familia y Cultura en Colombia*, Colombia : Ascofame, 1976.
- Ibáñez, A.M. and C.E. Vélez, "Civil Conflict and Forced Migration: The Micro-determinants and the Welfare Losses of Displacement in Colombia". *Documento CEDE 2005-35*. 2005.
- _____, "Instrumentos de atención a la población desplazada

- en Colombia: Una distribución desigual de las responsabilidades municipales", *Documento CEDE 2003-37*, 2003.
- Jaramillo Uribe, "Mestizaje y Diferenciación", *Ensayo sobre Historia Social Colombiana*,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1998.
- Manuel Pérez Salinas, Luis Marrugo Fruto, "Inventario de Activos Culturales de San Basilio de Palenque". *Documento de Trabajo inspirado en archivo documental de la Corporación Jorge Artel*. María Pía Mopollón Pupo(1991), *Estructura, Dinámica y Cambio de la Familia y el Cuagro en el Palenque de San Basilio*, Colombia : Universidad Los Andes, 2004.
- Maya Restrepo, Luz Adriana, "Botánica y medicina africanas en la Nueva Granada, siglo XVII", *Revista Historia Crítica*, no. 19, Bogotá, Universidad de Los Andes, 2000.
- Patrick Singh et al.(ed), *Palenque de San Basilio*, France: l'Association En la mar, presidée par Corinne. 1998.
- Perry, G, *Inequality in Latin América & the Caribben: Breaking, with History?*, Work Bank Group, 2004.
- Schwegler, Armin, "Chi ma Kongo", *Lengua y Ritos Ancestrales en Palenque de San Basilio*, Tomo II., 1996.
- Sánchez, Enrique & García, Paola, *Más Allá de los Promedios: Afrodescendientes en América Latina: los Afrocolombianos*, Washinton, The Word Bank, 2006.
- Váldez, Edwin, Marquez, Enrique, "La música palenquera: Saranga' ri m palenge", *Revista Anaconda*. Fundación BAT. Bogotá, Documento Conpes 3310, DNP 2004, 2006
- CODHES, "Colombia: Desplazados, Éxodo, Miedo y Pobreza," marzo de 1998.
www.fedepalma.org/document/2006/congreso_a_uribe.doc
www.imdb.com/title/tt0405232/
http://www.presidencia.gov.co/prensa_new/sne/2006/agosto/09/19092006.htm
www.mincultura.gov.co y www.eltiempo.com.co. Noviembre de 2005.
www.colombiaaprende.edu.co/html/etnias/1604/article-83289.html - 19k

❖ ABSTRACT

The principal factor of acculturation in Palenque de San Basilio

kyung mi Cha

The village of Palenque de San Basilio, with a population of about 3,500 inhabitants, is located in the foothills of the Montes de María, southeast of the regional capital, Cartagena. Palenque de San Basilio was one of the walled communities called palenques, which were founded by escaped slaves as a refuge in the seventeenth century. Of the many palenques that existed in former times, only San Basilio has survived until the present day. It developed into a unique cultural space. The Cultural Space of Palenque de San Basilio encompasses social, medical and religious practices as well as musical and oral traditions, many of which have African roots. This article analyze the principal factor of the movement of population in Palenque de San Basilio that lead the acculturation. The movement of population in Palenque de San Basilio is not only threatened by economic changes that affect local modes of production, but also by the armed conflict between Colombian paramilitary and local guerrilla groups. Outside Palenque, inhabitants are commonly subjected to discrimination and ethnic stereotyping leading to a denial of their cultural values.

Key Words

Palenque de San Basilio, unique cultural, movement of population, acculturation

372 비교문화연구 제12권 제1호 (2008)

논문접수일: 2008. 4. 23.

심사완료일: 2008. 5. 26.

게재확정일: 2008. 6. 13.